

Newsletter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효원 도서관

Vol. 51 2021. 12.



똑똑, 문을 열다
중앙도서관 1층 복합문화공간



CONTENTS

- 04 특별기고 SF가 담아내는 과학의 온기
- 08 도서관 200% 이용하기
Endnote
PNU Scholar
부산대학교 국제기구 자료센터
- 14 요건몰랐지 그 많던 보존서고의 책은 어디로 갔는가?
- 16 회원인감동공유 2021년도 회원인과 함께 읽고 싶은 책
- 18 여기 issue 메타버스
- 20 #발견 #이곳 영도 복합문화공간
- 22 시선 집중

발행처 부산대학교도서관 발행인 설문원 발행일 2021. 12.

편집 박경석, 박선화, 변아영, 서소영, 손다영, 전선구, 전태경

주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교로 63번길 2

전화 051-510-1309 팩스 051-513-9733 이메일 libplan@pusan.ac.kr

홈페이지 <http://lib.pusan.ac.kr> 디자인 디자인웍스 051-248-1513

표지 사진은 2021년 10월 <10.16 부마민주항쟁> 42주년을 맞아 항쟁의 발원지인 부산대학교 새벽별 도서관 앞에 조성한 「민주언덕」 사진입니다.

<효원 in 도서관>은 도서관 홈페이지와 블로그(<https://lib.pusan.ac.kr/pnublog>)에서도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SF가 담아내는 과학의 온도

김주영

약력

황금드래곤 문학상 수상(2002)
SF어워드 장편 부문 대상 수상(2017)
한중SF 문화교류 프로젝트 책임 기획자(역임)
한국SF협회 상임 이사(역임)
2021년 SF어워드 심사위원장(역임)
(현)웹진 겨울 편집위원

저서

장편 '시간 망명자' 외 다수
단편집 '이 밤의 끝은 아마도' 외 다수
공동작품집 '전쟁은 끝났어요' 외 다수



경쟁을 내면화하며 계속 앞만 보고 달려가기를 권장하는 한국 사회 속에서 느끼는 피로감 때문인지 최근 서점을 둘러보면 자신 성찰에 관한 서적이 많아졌음을 느낀다. 명상을 비롯하여 지금-여기에 머무르며 자신을 지지하라고 독려하는 이러한 서적들에는 따스한 온도가 있다. '나'라는 각 개인의 고유한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다독이는 따스함은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과학 서적의 느낌과 정반대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분명한 원인과 결과 그리고 원리를 탐구해 나가는 과학 서적에서는 근접하기 힘들 정도로 차가운 냉기가 흘러나와서 근처에 가기를 아예 꺼리는 독자도 있다. 그런데 과학을 담은 책의 온도는 정말 차가울까?

아마도 과학을 차갑다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과학이 사물과 현상을 다루는 과정에서 정확한 논리와 함께 눈이 어지러워질 정도로 현란한 수식을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빈틈없는 논리와 수식을 바라보다 보면 그곳에는 인간이 들어설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인간과 인간이 만들어 가는 사회는 논리와 수식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므로 과학은 비인간적이고 차갑다는 인상을 받기가 쉽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자연현상에 관한 설명은 과학만이 들려줄 수 있다. 그 설명은 세심하고 정교하며, 인간인 우리 자신의 기원부터 현재 삶의 모습에까지 이른다. 또한, 닿을 수 없는 머나먼 우주와 눈으로 볼 수 없는 극미세한 원자의 세계까지 우리의 인식을 확장시키기도 한다.

과학이 들려주는 설명이 건조하고 차갑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이면에 있는 의미를 일일이 풀어내지 않기 때문이다. 다행히 과학자들끼리만 공유하던 그 깊은 의미들을 대중과 나누는 책들이 최근에는 조금씩 출간되는 추세인 듯하다.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의 저서 『떨림과 울림』도 그중 하나이다. 진동을 의미하는 우주의 떨림과 인간의 반응인 울림을 담은 책 제목처럼 과학적 개념과 함께 그것이 품은 인문학적 의미를 풀어냈다. 책에는 물리학적 개념인 빛과 시공간, 힘과 에너지 그리고 진동 등이 잔뜩 등장하는데,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과학적 설명이 세상과 인간에 대한 통찰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전자는 실체가 아니라 전자장이 만들어 내는 결과물이며, 서로 구분할 수 없이 똑같다'라는 문장은 실제 삶과 동떨어진 과학 현상을 관찰하고 서술한 딱딱한 설명 같다. 그런데 저자는 이러한 과학적인 관찰을 '때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삶의 사유와 통찰로 연결한다. 과학적 사실이 품은 인문학적 의미가 마침내 드러나며 온기를 띄는 지점이다.

과학적 사실이 품은 이러한 온기를 SF 작가는 적극적으로 탐색한다. 어쩌면 이 부분에서만큼은 SF 작가들이 과학자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과학적 사실 탐구에 본질을 두는 과학자와 달리 SF 작가는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사고 실험을 통해 SF적인 상상력을 확장해 나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SF 작가는 때로 객관적인 과학적 사실을 은유로 읽어내기도 하고, 그 이면에 숨은 또 다른 의미들을 간파하려고 노력하며 생각을 확산시킨다. 그러다 보면 그 과정에서 과학이라는, 현상을 예측하고 설명하는 도구적 속성의 차가움 뒤에 숨었던 따스하거나 인간적인 의미를 발견한다.

어쩌면 SF의 본질은 이처럼 과학의 이면에서 발견한 따스하고 인간적인 의미와 사유를 담아낸 이야기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므로 과학 서적 읽기가 버거운 독자들에게는 SF 읽기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SF를 통해 정확한 과학 지식을 쌓기는 쉽지 않겠지만, 과학이 발전해 오는 동안 인간이 던져왔고, 앞으로도 던지게 될 많은 질문과 가설에 대한 통찰을 얻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지구와 인류는 어떻게 진화해 왔는가?

과학은 '인간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다양한 가설로 답한다.

잘 알려진 가설로는 빅뱅 이론과 진화론이 있다. 우주가 생기고 지구 위에 생물이 출현하여 인간이 나타나기까지 그 길고 긴 여정이 교과서를 비롯한 여러 책에 실려 있다. 최이수의 『두 번째 달』은 자칫하면 지루하게 여겨질 그 여정의 경이로움을 거대한 별의 서사시처럼 담아냈다. 인간이 우주와 해저에 남긴 세 인공지능이 서로 교신하며 억겁의 시간에 거쳐 지구를 진화시키는 과정이 철저한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서 펼쳐지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게 진화의 경이로움을 맛볼 수 있다. 원자의 영속에 관한 이론이 먼 별에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용되어 존재의 영속을 사유함에 이르는 과정 역시 의미 깊다. 진화를 설명하는 과학이 신화 속에 등장하는 생물과 진화를 설명한다면 어떤 방식을 취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상상이라고 생각했던 생물이 실재했고, 그들의 진화 속도가 알려진 것과 달랐다면 역사 속의 신화는 전혀 다른 과학적 사실로 적힐 것이다. 삼국사기를 근간으로 그러한 상상력을 펼친 김보영의 『진화신화』는 과학과 신화적 상상력의 절묘한 결합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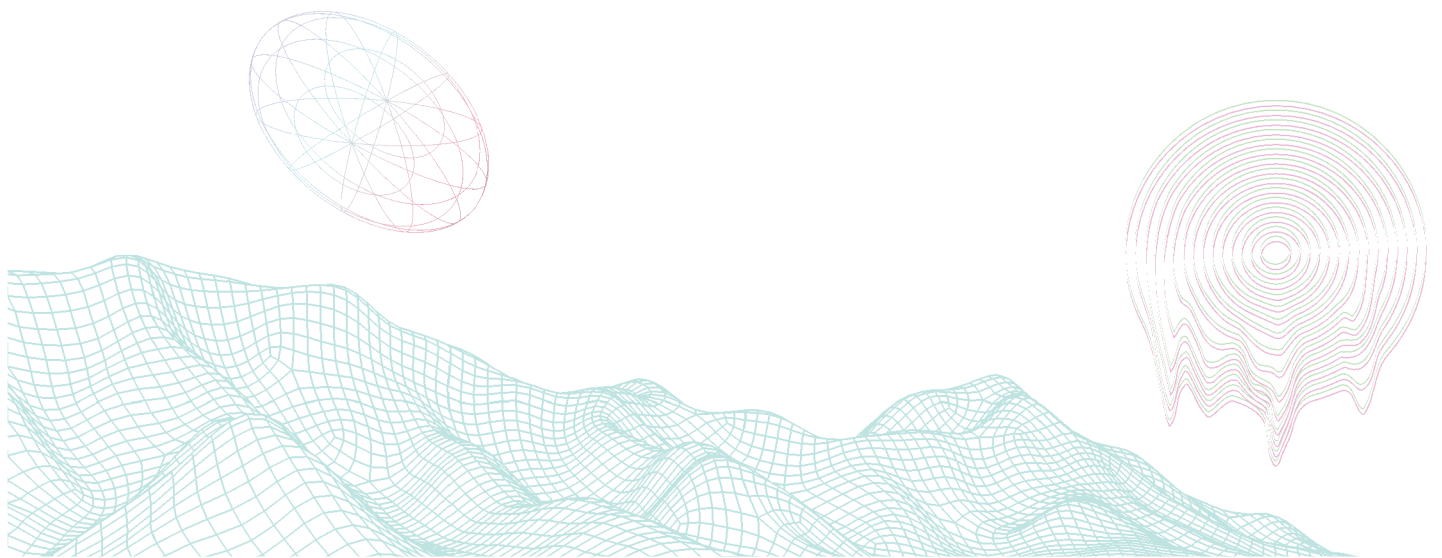


우주에 우리는 혼자인가?

진화를 끝낸 인간은 공간을 확장하며 우주로 시선을 돌리고 그곳으로 나아갔다. 정교한 기술로 우주선을 쏘아 올려 도달한 광활한 우주 속에서 인류는 ‘우주에 우리는 혼자인가?’라는 질문을 필연적으로 던진다. 이 질문에 답하는 대표적인 최근 SF는 딸에게 쓰는 편지 형식으로 쓴 테드 창이 단편 『네 인생의 이야기』이다. 이 단편 속에는 미래를 알게 된다면 현재의 선택을 통해 미래를 바꾸어야 하는지 생각하게 만드는 외계 존재 헵타포드가 등장한다. 과학자가 읽어도 오류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구축된 과학적 설정과 외계 존재와의 접촉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동안 만나게 되는 수많은 선택의 의미를 오랫동안 깊이 음미해 볼 수 있는 단편이다. 『네 인생의 이야기』는 영화 ‘컨택트’의 원작이기도 하다. 호의적인 외계인을 다룬 『네 인생의 이야기』와 달리 다소 호전적인 외계 존재를 다룬 SF로는 류츠신의 『삼체』가 있다. 『삼체』에서는 인류 이외의 종족과의 생존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인류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우주 사회학을 펼치는데 이는 고 스티븐 호킹이 외계 존재에 관해 취했던 관점과 유사하다. 오바마 대통령이 애독할 정도로 최근 몇 년간 세계 SF 팬덤에서 가장 각광 받은 『삼체』는 외계 존재와의 만남 외에 팽창이론, 양자역학과 끈 이론 등의 이론에 탄탄하게 기반하여 SF적인 상상력을 펼친다. 우주와 미래에 관한 설정이 작가의 모국인 중국 현대사나 동양적 세계관과 절묘하게 결합하는 지점 역시 매우 매력적이다.

나는 누구인가?

우주와 저 너머 미지의 세계에 있는 외계 존재로 향하던 인식은 전자기술 발달과 함께 최근에는 정체성에 관해 확장된다. 현대인은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스마트폰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많은 것을 기록한다. 뇌과학의 발전과 함께 기록 대상은 인간의 기억으로까지 확장된다.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저서 『특이점이 온다』에서 뇌의 정보를 모조리 컴퓨터로 옮겨 영생을 누리며, 인간이 기계가 되고 기계가 인간이 되는 미래 변화의 시점 바로 가까이 다가왔다고 말한 바 있다. 생물 복제 기술은 이미 실현되었고, 윤리적 문제가 없다면 인간 복제도 이미 시간문제인지도 모른다. 만약 그런 시대가 곧 닥쳐서 나의 기억과 몸이 복제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진짜 ‘나’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경희의 『테세우스의 배』는 인간이 물리적·전자적으로 확장된 시대에서 발생하는 정체성의 문제를 대기업 경영권 다툼과 결합해 다룬다. 경영권을 되찾아만 하는 후계자는 기계 몸, DNA로 복제된 몸, 오리지널에 가장 가까운 메모리 등 셋으로 분화되어 있는데 셋 중 무엇이 진짜 ‘나’인지 구분해야 하는 위기에 처한다.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진짜’ 나를 판별하는 방법으로 ‘자기동질성 검증’ 알고리즘이 등장한다. 인간의 복제가 가능하다면 그와 관련된 범죄방식도 새롭게 등장할 수 있다. 화려하게 주목받은 무르 래퍼티의 『식스 웨니크』는 복제 인간과 관련된 살인사건을 다룬다. 밀실 우주선에서 살해된 여섯 명의 클론은 다시 복제되어 새롭게 깨어나게 되고, 밀실 우주선 안에서 누가 살인자인지 찾아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여러 방식으로 복제된 ‘나’ 중에서 어느 것이 진짜인가 구분해야 하는 미래에는 인간과 기계를 구분하는 기준 역시 화두가 된다. 내 기억을 가졌지만, 몸은 기계인 나는 기계일까, 인간일까? 인공지능이나 기계 몸이 흔해지는 시대가 이르면 몇 % 이상의 신체가 남아있어야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 게다가 인간형 로봇인 안드로이드가 흔한 시대가 온다면 이들과 어울려 지내는 사회의 모습은 어떠할까? 시간여행을 소재로 썼던 『시간 망명자』에서는 이 모든 경계가 사라진 사회가 등장한다. 인간은 어떤 형태이든 원하는 몸을 선택하여 기억을 이식할 수 있기에 성별과 나이의 개념이 상실된다. 그와 함께 안드로이드 역시 시민권을 부여받고, 반력자로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된 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조금 더 근미래의 모습을 담은 천선란의 『천 개의 파랑』에는 인간보다 더 인간적으로 느껴지는 버려진 기수 안드로이드가 등장한다. 생로병사와 함께 차별을 비롯한 사회의 부조리를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적인 안드로이드의 모습은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과연 어디인지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SF를 읽어본 경험이 없어 과학적 설정을 이해하고 읽어내기가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조금 더 서정적인 SF 읽기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켄 리우의 단편선 『종이 동물원』은 SF를 접한 적이 없었던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읽을 수 있다.

중국계인 저자의 동양적 가치관 때문에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유리하기도 하고, 각 단편이 SF를 비롯한 여러 장르와 결합하고 있어서 다양한 색깔을 느껴 볼 수 있다.

SF의 매력은 과학 저 깊은 곳에 있는 깊은 의미를 조금 더 흥미롭고 즐겁게 읽을 수 있는 것이다. SF 읽기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은 과학적인 설정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없진 않지만, 한두 권 읽어가다 보면 점점 익숙해진다. 그때쯤이면 SF를 넘어서 과학이 주는 삶에 대한 통찰이 따스함을 알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관리도구

EndNote 엔드 노트 활용법

논문이나 레포트를 쓸 때 참고문헌
리스트를 하나하나 타이핑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있다면 어떨까?

모아놓은 참고자료를 분류하고 필요
할 때마다 북마크처럼 볼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이 있다면? 이럴 때 도서관에서 제공
하는 참고문헌관리도구인 EndNote
(엔드노트)와 RefWorks(레프웍스)가
유용하다. 유료 프로그램이지만, 우리
대학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엔드노트(EndNote)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참고문헌 관리도구로, 2020년 10월에
최신 버전인 EndNote20 버전이 출시
되었다.

여기서는 최신 버전인 EndNote20의
활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EndNote란?

- 다양한 학술DB와 전자저널을 검색하여 나오는 결과 중에서 필요한 참고자료(레퍼런스)를 선택하여 가져와
저장, 편집 및 관리할 수 있는 PC설치 기반(소프트웨어) 참고문헌 관리 도구이다.
- PDF 등 전자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참고자료를 EndNote에 저장하여 필요할 때 읽을 수 있으며, 논문을
쓸 때 인용하거나 참고문헌 리스트를 원하는 스타일(약 7,000건 제공)로 생성할 수 있다.
- MS Word와 연동하여 논문을 쓸 때 EndNote에 저장된 다양한 참고자료들을 불러와 원하는 형식에
맞추어 인용 및 편집할 수 있다.

EndNote 사용하기

1. EndNote 프로그램 설치하기

- 부산대학교 도서관-학습연구지원-참고문헌관리-EndNote0|용방법-EndNote프로그램 설치 파일 다운로드
후 설치(반드시 압축파일을 PC에 저장 후 압축을 풀어 설치)
- EndNote Web(<http://myendnoteweb.com>) : 엔드노트의 웹버전으로 주로 모아놓은 참고문헌 데이터
백업을 위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사용

2. EndNote 메뉴 구성

The screenshot displays the EndNote 20 desktop application. On the left is a sidebar with a file explorer showing folders like 'All References' (145 items), 'Recently Added' (25), 'Unfiled' (76), and 'Trash' (0). Below these are 'MY GROUPS' including '메타버스', '빅데이터', '학위논문', '미술치료', '국내자료', '실습용 원문파일', '실습용 원문...', 'My Groups', '의학자료', '국내자료', '국외자료', '코로나19', '국내자료', '국외자료', and '독서프로그램'. The main window has a menu bar (File, Edit, References, Groups, Library, Tools, Window, Help) and a toolbar. Below the menu is a search area with dropdowns for 'Author', 'Year', and 'Title', each with a 'Contains' filter and a search button. A table of references is shown with columns for Author, Year, Title, and Journal. The first reference is by '신혜은' (2018) titled '독서치료의 뇌 과학적 기반을 위한 고찰' published in '독서치료연...'. The right pane shows a preview of the selected reference, including its title, author, and a snippet of the abstr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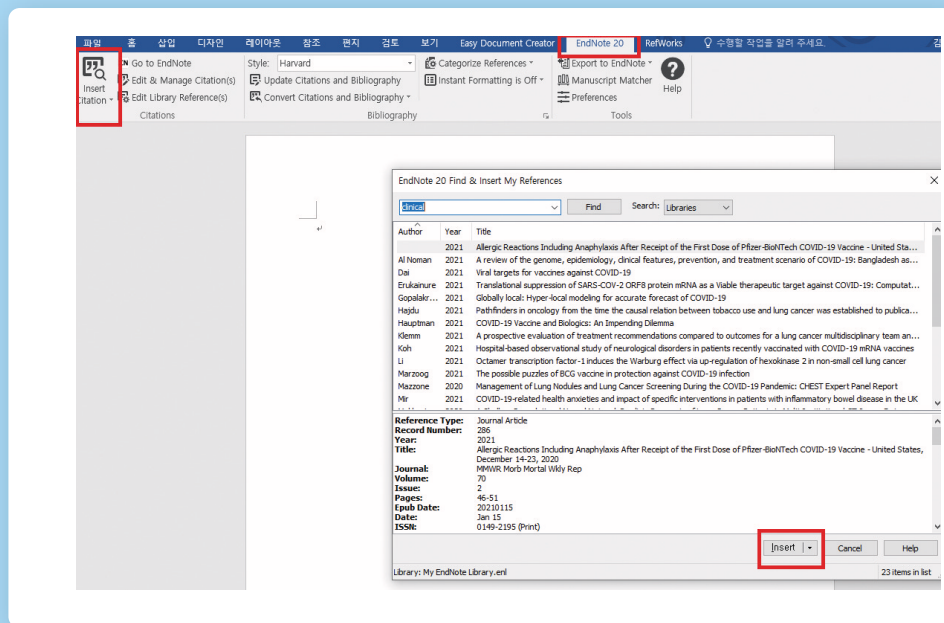
- ① 메뉴패널 : 각종 세부 기능 사용 메뉴
- ② 그룹패널 : 그룹 생성 및 관리, 온라인 검색 DB 선택
- ③ 검색패널 : 레퍼런스(참고문헌) 리스트 및 외부 DB 검색
- ④ 레퍼런스 리스트 패널 : 수집한 레퍼런스(참고문헌) 모아보기, 즐겨찾기목록과 비슷한 기능
- ⑤ 레퍼런스 패널 : 개별 레퍼런스의 상세 내용 확인, PDF등 원문 첨부파일 확인

3. EndNote로 레퍼런스 수집하기

- 학술 Web DB에서 검색하여 가져오기 : 참고자료 선택 후 제목 클릭→①내보내기 (Export 혹은 반출) 선택→②서지정보 내보내기에서 EndNote선택→③내보내기 클릭
- EndNote 내 Online Search 기능을 활용하여 가져오기 : 검색 후 대상 자료 선택 후 마우스 우클릭 → Copy Reference to My EndNote Library 선택하여 반입

4. Word와 연동하여 인용작업하기

- Cite While You Write : MS워드로 논문 작성시 EndNote에 저장된 레퍼런스를 가져와 인용 및 참고문헌 리스트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며, Word 상단의 메뉴바에서 사용



- 인용할 Reference를 엔드노트에서 선택하여 Drag&Drop을 하거나, Insert Citation 버튼을 눌러 원하는 Reference를 선택하여 인용 처리



● EndNote 홈페이지

<https://endnote.com>

<https://myendnoteweb.com> (Web버전)

● 부산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pusan.ac.kr>)

-학습연구지원

-이용교육

-온라인 이용교육 가이드

● 도서관 정기 이용교육 참가 문의

도서관 연구정보지원팀

051-510-3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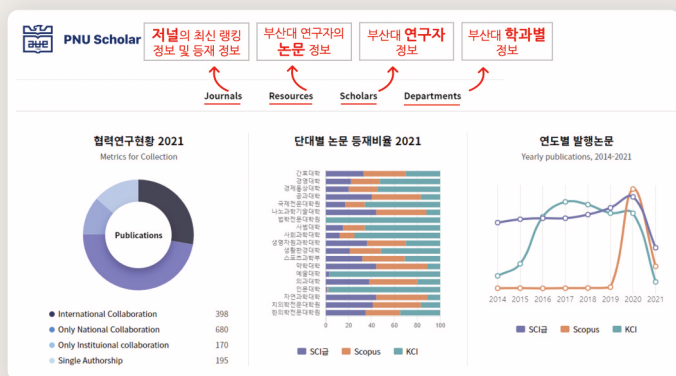
(<https://scholar.pusan.ac.kr>)

쉽고 간편한 “PNU Scholar” 근데 그게 뭐야?

복잡한 JCR, Web of Science, Scopus, KCI는 가라!! 부산대학교 도서관 **PNU Scholar**가 있다.
PNU Scholar를 활용하는 꿀팁 대방출

메인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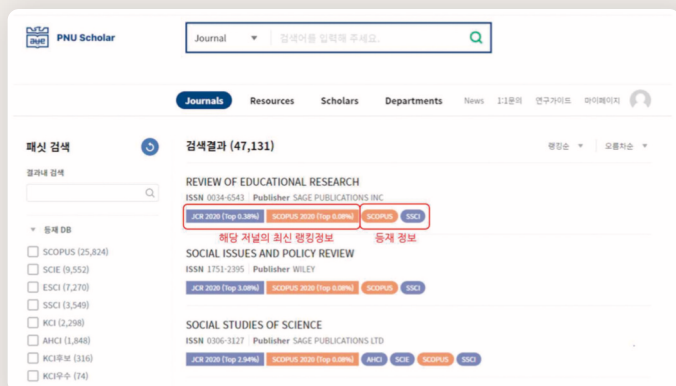
Journals, Resources, Scholars, Departments 메뉴별로 원하는 정보를 볼 수 있다. 부산대학교 연구자와 타대학 연구자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에 관한 내용, **단과 대학별 논문 등재비율, 연도별 발행논문수** 그래프를 볼 수 있다.



Journals 학술지 랭킹정보와 등재정보를 한번에!

DB 3종의 최신 랭킹 정보, 저널 등재 정보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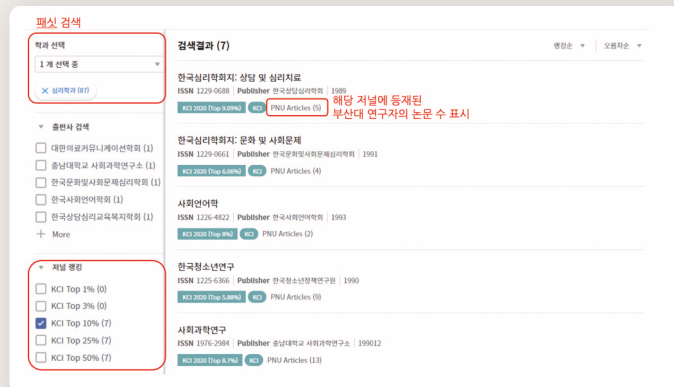
Journals 메뉴에서는 국내·외 주요 DB 3종(Web of Science, Scopus, KCI)을 통합하여 저널별로 랭킹 정보 및 등재 정보를 볼 수 있다.



패킷 검색 활용하여 원하는 저널 모아보기

왼쪽의 '패킷 검색'을 통해 등재여부, 등재연도, 카테고리 랭킹(Top 1%, 3% 등)에 따라 제하검색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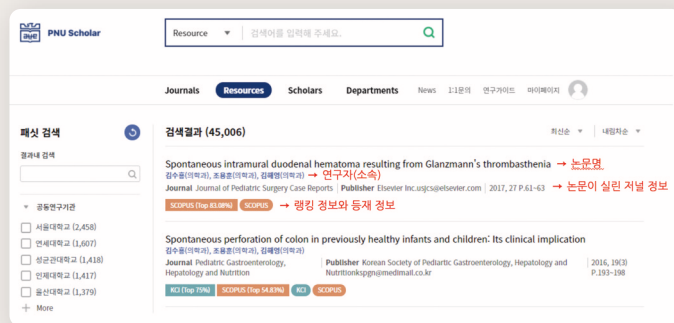
예를 들어 [심리학과의 KCI 상위 10% 저널]을 보고 싶을 경우, **학과 선택**에서 [심리학과]를 선택하고 **저널 랭킹**에서 [KCI Top 10%]를 선택하면 조건에 맞는 7개의 저널을 볼 수 있다. 또한 각 저널에 부산대 연구자의 논문이 등재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Resources 논문별로 등재정보를 보고싶다면?

부산대학교 연구자가 발표한 논문 정보 확인

Resources 메뉴에서는 부산대학교 연구자가 발표한 전체 논문을 볼 수 있다.
논문을 발행한 연도에 해당하는 **랭킹 정보** 등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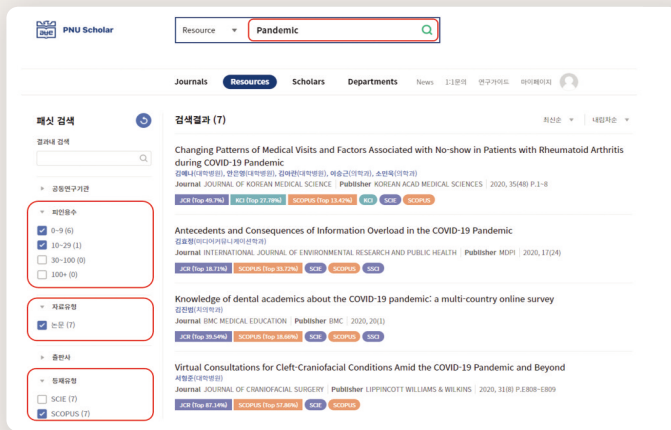


Prologue

내 논문을 어디에 실어볼까?
내가 쓴 논문이 얼마나 인용됐을까?
내 논문, 우리 학과 교수님 논문을 모아 볼 수 있을까?
SCI급, Scopus, KCI, 상위%, Impact Factor 이게 다 뭐야? 누가 좀 도와 줘요!!!

패시 검색 활용하여 원하는 논문 모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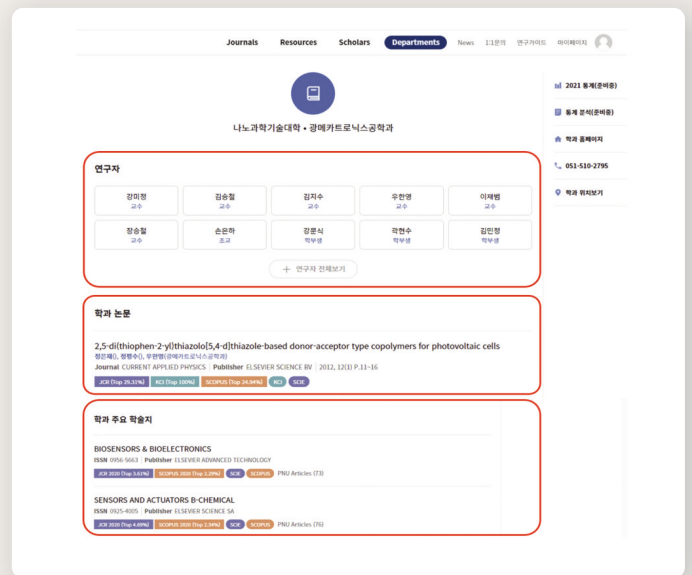
‘패시 검색’을 통해 공동연구기관, 피인용수, 자료유형, 출판사, 등재유형, 학과, 출판연도 등에 따라 제한검색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Pandemic]에 관한 논문 중 피인용수가 0~290이면서 SCOPUS에 등재된 논문**을 보고 싶을 경우, 검색 박스에 **[Pandemic]** 검색 후 아래와 같이 **피인용수**에서 **[0~29]**를 선택하고 **자료 유형**은 **[논문]**, **등재 유형**은 **[SCOPUS]**를 선택하면 조건에 맞는 7개의 논문 정보를 볼 수 있다.



Departments 우리 학과 논문 둘러보기

학과에 대한 세부 정보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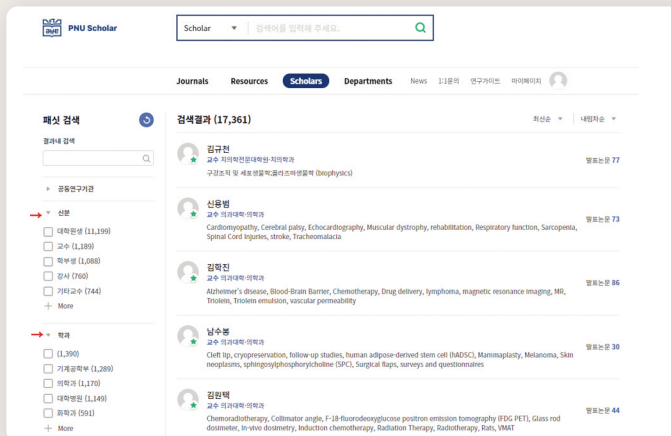
각 학과명을 클릭하면 소속 **연구자**를 모아볼 수 있다. 하단에는 해당 학과에서 발표한 **논문** 및 주요 **학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Scholars 부산대 연구자별로 성과 보기

부산대학교 연구자 정보 확인

Scholars 메뉴에서는 부산대학교 소속의 모든 연구자를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신분, 학과별로 제한검색이 가능하다.



마이페이지 내 연구 업적 관리하기

마이페이지에서는 자신의 프로필 및 연구 업적을 관리할 수 있다. **프로필** 메뉴의 내용과 **연구자 ID**는 연구자가 직접 수정이 가능하다.



부산대학교 국제기구 자료센터



UN자료

우리 도서관은 1998년 4월 UN본부로부터 기탁도서관으로 지정, 2001년 1월 완전기탁도서관으로 전환, 지정되었다. UN자료란 총회를 중심으로 하는 UN본부의 각 보조기관, 관련기구, 전문기구, 위원회 등에서 발행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UN은 1945년 창설 이래로 UN의 목적과 활동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각종 형태의 출판물에 수록하여 관심 있는 회원국 이용자에게 UN기탁도서관 및 산하 기관들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 UN출판물은 국제기구로서의 UN을 연구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어 오고 있다. UN은 창설초기부터 각종 활동과 정책들을 문서화하고, 각종 법규와 기구 활동에서 생산된 수천종의 정기간행물과 단행본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어 도서관 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

국내 UN기탁도서관

고려대학교(1957년), 국회(1979년), 서울대학교(1992년), 연세대학교(1994년), 국립중앙도서관(1997년), 부산대학교(1998년), 전남대학교(2000년), 부산동의대학교(2001년),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2003년), 인천미추홀도서관(2009년)

UN ODS(UN Official Document System)

- UN의 Full-text 검색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 1946년 이후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의 공식언어로 된 모든 resolutions과 decisions 제공
- 1993년부터 뉴욕에서 생산된 300,000건 이상의 문헌들과 제네바에서 생산된 문헌, 이사회 초고, 출판전 자료, 미기탁자료의 Full-text 검색 가능



UNTC(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 각종 조약집을 웹 버전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 도서관 홈페이지 (<http://pulip.pusan.ac.kr>)
전자자료 검색 > 국외학술DB >
UN Archives, UNdata(UN Common Database) 참고



EU자료

우리 도서관은 2006년 11월 EU 자료기증 협정 체결을 맺었으며, 우리 대학 이외에도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국회도서관이 EU자료 기탁센터로 지정 되어있다.

EU자료 코너는 특히 유럽법 분야가 특화되어 EU의 활동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코너이다.

EU의 모든 법률과 법률이행을 위한 각 기관의 활동을 수록한 'Official Journal'과 위원회가 생산하는 대표적인 문서가 수록된 'Com Document' 정보는 1952년부터 현재까지 EUR-Lex의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현황

Official Journal

5개 시리즈로 나뉘어 출판되며 각 시리즈가 포함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L series (legislation)	EU법규로서규칙, 지침, 결정, 권고와 의견, 협정, 협약, 예산결의 등
C series (information and notices)	EU 각 기관의 활동사항 및 2차적 법원 수록물
S series (supplement)	각종 계약이나 입찰정보
Annex	의회 개회등안 토의되는 안건에 대한 전문 수록
Index	월간, 연간 색인

Com Document

법률안자료, 백서류, 시책보고서 등을 담고 있으며, 문서번호가 연도와 연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998년 이전에는 (97)123의 형태이다가 1998년부터는 (1998)123의 형태를 띠고 있다.

Legislation

EU법은 설립에 관한 조약과 부속서, EU 각 기관이 제정한 법규, 회원국 국내법 및 국제기구와 국제조약을 규율하는 국제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Case-Law

재판소의 판결문을 공식적으로 수록되는 문서는 "Reports of Cases before the Court", 일명 "European Court Report(ECR)"이며, 1989년에 설립된 제1심재판소와 유럽재판소의 판결은 'C'와 'I'로 구별한다.

EUR-Lex

유럽연합법, Official Journal, 조약 및 법규, 판결문 및 법률안 등을 Full-text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



부산대 EU자료 기탁센터 설립의 배경과 회고

부산대 도서관은 현재 EU 자료 기탁센터로 공식 지정되어 EU에서 발간한 많은 자료를 무상으로 서비스받고 있다. 현재 중앙도서관 2층과 법학도서관에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1990년대부터 'EU학'의 진흥에 헌신하신 허만 명예교수로부터 EU자료 수집을 둘러싼 90년대 초의 치열했던 경험을 들어보았다.



허만 명예교수
(사회교육학과)/한-유럽연합포럼 고문

필자는 부산대학교에 부임하면서부터 EU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오랫동안 대학의 사정이 녹록치 않아 조기에 이루지 못했다. 90년대만 해도 유럽연합은 150여 종의 자료를 10개국 언어로 발간하고 있었다. 파리 제1대학교 (소로본 대학)에서 공부한 필자는 유럽연합 연구를 위하여 1990년에 부산대 부설로 유럽연구소(Institute for European Studies)를 설립했고 EU자료를 일부라도 기증 받고자 하였다.

먼저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EU 본청에 설립된 대학정보국(Direction d'Universite d'Information)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였다. 1년 반 동안 여러 차례 서신을 보냈으나 아무 반응이 없었다. 결국 1991년 브뤼셀 본청으로 자비 여행을 떠났고 이틀 만에 대학정보국의 국장을 면담할 수 있었다. 이때 필자는 유럽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대에는 유럽에서 공부한 학자들이 많이 있으니 정치, 경제, 산업/기술, 문화에 대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국장은 부산대 학부에 EU학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했고 부산대는 글로벌 연구에 중점을 두면서 교육과정을 점진적으로 재편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국장은 협조를 약속했다. 브뤼셀을 방문한 1991년부터 정치, EU 주간 정책 보도집, 경제(통계자료), 산업/기술(통계자료) 등이 도착하더니 1992년부터는 유럽연합재판소 판례집을 산더미로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유럽연구소에서 분류하고 관리하기에는 자료가 너무 많아지면서 문헌정보학과 김정근 교수의 도움으로 중앙도서관으로 자료를 이관하였고 이후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었다. 그런데 EU는 지속적으로 부산대 도서관에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조건을 걸었다. EU 대학정보국은 공식 명칭을 European Documentation Centre로 하라고 주문했고, 주한 유럽연합대표부는 자료분류에 유럽연합의 문서 분류체계를 적용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부산대 도서관은 주제분류체계(DDC)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기 어려웠다. 얼마 후 대표부 참사관이 분류 방식과 운영실태를 관찰하기 위해 부산대 도서관을 방문했고 분류방식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갈등이 일어났다. 필자는 분류방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EU자료를 널리 홍보하고, 많은 한국 학생들과 유럽에 관심 있는 한국인들이 자료를 이용하게 하여 유럽 연구의 기회가 확대되면 그것이 최상의 성과가 아니겠냐고 두 차례에 걸쳐 설득했고, 결국 갈등은 해소되었다.

수년 전부터 유럽연합재판소의 판례집은 법과대학 도서관으로 이전돼 운영하고 있다. 한-EU FTA 체결 이후 유럽연합은 중국에 이어 제2의 수출 시장이 되었고, 그 뒤 양자는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으로 접어들었다. 유럽연합이 한국의 긴밀한 우방이란 외교적 관점을 고려해 중앙도서관에 EU Studies 코너가 영구히 운영되기를 바란다.

그 많던 보존서고의 책은 어디로 갔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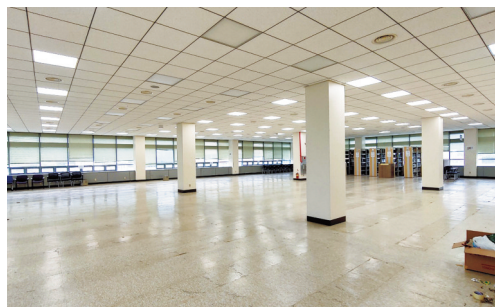
새벽별 도서관 1층 전체는 리모델링을 거쳐 학생들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한다. 1층에서 가장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던 곳은 보존서고로 일반학생 출입이 안되는 곳이라 생소할 것이다. 보존서고는 지금 당장 대출이 활발히 되지는 않지만 언젠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책들을 모아 놓은 곳이다. 손잡이가 달린 서가는 모빌랙 서가로 이동이 가능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존서고 모습

01

새벽별 도서관 1층 보존서고에는 279,944권의 책이 있었다. 이 책들은 어디로 갔을까? 보존서고의 책들은 학생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우리 도서관의 또 다른 한축인 나노생명과학도서관으로 이관되었다. 쉽게 볼 수 없는 책의 이사 과정을 살펴보자



서가를 이동시킨 나노생명과학도서관



모빌랙 서가 설치



서가에 배치되기를 기다리는 책들



이동 작업이 끝난 나노생명과학도서관 보존서고

04

이동한 책들은 새벽별 도서관의 꼼꼼하고 세밀한 사전작업 덕분에 나노생명과학도서관에서 빠르게 정리할 수 있었고 대출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보존서고의 대출방법은 새벽별 도서관에 있을 때와 같다. 책을 검색하고 보존서고대출 신청을 하면 우리 대학 도서관 어디에서도 책을 받아 볼 수 있다. 이렇게 27만 권의 보존서고의 책이 무사히 나노생명과학도서관으로 이동해 새벽별 도서관 1층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보존서고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학생들을 위한 문화공간은 겨울방학 기간 중 공사를 거쳐 22년 3월 오픈 될 예정이다.





선반 번호 부여



간지가 올라 간 책 바꾸니

02

27만 권의 책이 나노생명도서관에 가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세밀한 작업이 필요했다. 담당사서는 한 달 넘게 모든 선반에 번호를 붙이고 간지 작업을 하느라 하루종일 보존서고에서 지냈다고 한다.

나노생명도서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책과 함께 155개의 모바일 서기도 하나하나 분리해 같이 이동했다. 이 과정이 매우 번거롭고 힘든 작업이지만 예산 절감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다. 서가를 분리하고 책을 순서에 맞게 바꾸니에 담고 수천 개의 바꾸니를 밀양 나노생명과학도서관으로 이동했다. 5톤 트럭 130대 분량이었다. 보존서고에 오랫동안 있던 책을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 항온항습장비가 구비된 무진동 차량으로 이동시켰다. 서가를 모두 이동 시킨 보존서고의 모습은 생각보다 꽤 넓직했다. 기록관 철거도 함께 이뤄져 1층 전체가 학생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될 것이다.



모바일 서가 분리



나노생명과학도서관으로 가기 위해 대기 중인 책들



항온항습 무진동 차량



새롭게 변신할 새벽별 도서관 1층 보존서고

03

새벽별 도서관과 한시간 거리에 있는 밀양 나노생명과학도서관에서는 보존서고 책을 맞이할 준비로 한창 분주했다. 나노생명과학도서관도 책으로 차 있었기 때문에 27만 권의 책이 들어갈 보존서고 공간확보가 우선이었다. 8월 중순부터 5층 도서 75,406권의 정리작업을 시작으로 하중을 견디기 위한 보강공사도 함께 진행했다. 2층과 5층 공간확보를 하고 새벽별 도서관에서 온 모바일 설치를 할 수 있었다. 책과 서가 이동은 두 달 동안 나노생명과학도서관 자체인력만으로 진행해 복합문화공간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었다.



효원인과
함께
읽고 싶은 책



비대면 시대의 정서적 교류, 효원인과 함께 나누고픈 내가 읽은 책의 감동

도서관에서는 2012년부터 매년 '효원인과 함께 읽고 싶은 책'을 추천받고 우수 추천서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공모전을 운영 중이다. 올해의 추천서 중 눈에 띄는 책들과 추천의 글들을 소개해본다. 올해 공모전에서 선정된 책과 추천의 글은 중앙도서관 1층 효원책방에서 전시하고 있으니 옮겨올 감동을 함께하길 권한다.

내가 만난 소년에 대하여

천중호 | 우리학교 | 2021
법학도서관 4층 단행본
[BDM 364.36 천75ㅅ]
추천인 | 김가연 (공공정책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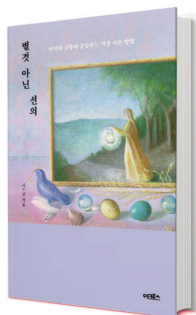
내용과 저자의 가치관을 보면서 소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구조, 소년들의 배경 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책을 읽으며 소년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겉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왜 범죄를 저질렀고 우리 사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별것 아닌 선의

이소영 | 어크로스 | 2021
중앙도서관 3층 인문사회자료관 단행본
[HDM 300.2 이55ㅂ]
추천인 | 김슬 (철학과 서양철학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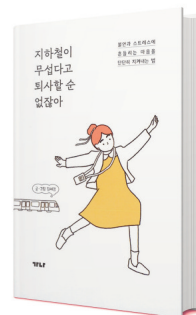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한 혐오와 차별이 만연해진 이 시대에 우리의 희망이 되어 줄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감정은, 분노가 아닌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별 것 아닌 선의'를 베풀어보기 바란다. 어떤 사람에게 그 선의는 '별 것'이 아니라 평생동안 잊혀지지 소중한 기억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선의를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지하철이 무섭다고 퇴사할 순 없잖아

김세경 | 가나출판사 | 2021
중앙도서관 2층 문학예술자료관 단행본
[LDM 811.8 김53ㅈB]
추천인 | 나재경 (제약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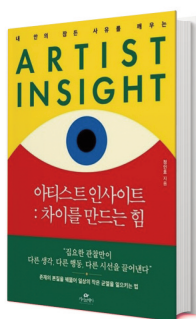
작가의 공황장애 경험을 글과 작은 컷 만화들로 잘 담아내어서 정신 건강 의학 도서를 찾는 사람들에게 입문서로서 추천하고픈 책이다. 공황장애를 극복하는 데에 있어서 작가는 고통에서 회피하지 않고 벗어나려고 애쓰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연습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아티스트 인사이드 : 차이를 만드는 힘

정인호 | 카시오페아 | 2021
중앙도서관 2층 문학예술자료관 단행본
[ADM 700.2 정69 이]
추천인 | 진윤정 (중여중문학과)

이 책은 복잡하고 심오한 예술가들의 함의와 그 작품들에 녹아 있는 지혜를 현대의 트렌드와 함께 담아낸다. 그렇게 이야기를 따라가며 그림을 관찰하고 그를 통해 내면을 성찰하면서 창조와 발견의 순간에 대해 고민하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책을 읽는 다른 이들도 나와 같은 이러한 순간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슬픔이 질병이라면 나는 이미 죽었을 텐데

김제인 | 댄앤와이드 | 2021
중앙도서관 2층 문학예술자료관 단행본
[LDM 811.4 김73 x C]
추천인 | 이윤서 (불어불문학과)

우울의 늪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나쁜 것이 아니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준다. 책을 읽으며 나는 작가가 들려주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를 엿보기도 하고 내가 몰랐던 나의 감정들을 마주하기도 했다. 누군가에게는 이 책이 묵혀 왔던 눈물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할 수도, 묻어뒀던 기억의 먼지를 털어내는 작업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방치되어 있던 진정한 자신과 대화할 수 있길 기원한다.



사진이 말하고 싶은 것들

김경훈 | 시공아рт | 2021
중앙도서관 2층 문학예술자료관 단행본
[ADM 770.2 김14 x A]
추천인 | 남응모 (수학과 수학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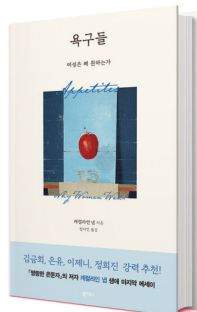
‘사진에 대한 가장 좋은 소재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합니다. 나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을 스마트폰에 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자의 말처럼, 미래의 해피 엔딩의 안식을 느끼기 위한 증거로서 행복했던 가족의 오늘의 사진을 남겨야 하겠습니까. 사진은 이처럼 영원할 테니까요.



욕구들

캐롤라인 뎀 | 북하우스 | 2021
중앙도서관 3층 인문사회자료관 단행본
[HDM 362.1968 K67a한A]
추천인 | 김건희 (교육학과)

여성의 욕구가 어떻게 억압되고 있는지, 채워지지 못한 욕구에서 오는 허기와 공허에서 여성들의 삶이 어떻게 극단에 치닫는지를 세밀히 검토해본다면 여성이 자유로이 욕구할 수 있는 사회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세상 모든 여성들이 자신의 욕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여성의 욕구들이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분명히 드러내고 싶은 나의 욕구들 중 하나이다.



여름의 겨울

아들린 디외도네 | arte(아르테) | 2020
중앙도서관 2층 문학예술자료관 단행본
[LDM 843.92 D567v한]
추천인 | 이현서 (철학과)

세상에는 폭력에 노출될 수많은 ‘나’가 존재한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소녀를 보며 위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소녀가 잘 견뎌내거나 대단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그 상황을 타파해서가 아닌, 공감으로써의 위안이다. 『여름의 겨울』은 이유 없이 들이닥친 폭력에 숨죽이는 ‘나’들에게 보내는 위로이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버텨주어 고맙다는 편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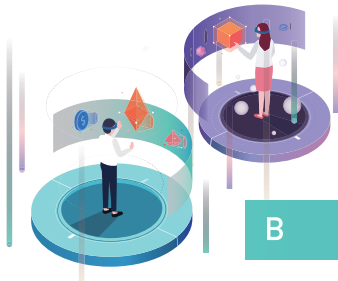


2인조

이석원 | 달 | 2020
중앙도서관 2층 문학예술자료관 단행본
[LDM 811.4 이53 o F]
추천인 | 황혜진 (한의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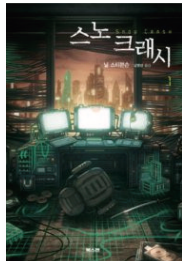
우리는 누구나 ‘나’와 가장 가까우지만, ‘나’를 가장 모를지도 모른다. 가까운 만큼 더 잘해야 할 대상이지만, 남들의 시선과 기준에 가장 먼저 깎아내고 희생을 강요하는 대상이 ‘나’일지도 모르겠다. 좀 더 멋진 모습이 되고 싶다고 나를 버리고 부정하기 보다는 일단 나를 최대한 인정해주는 것. 나에게 가장 솔직해보는 것. 나에게 진실해야 타인에게도 진실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아픈 후에 알게 되었다. 나를 밀어내고 다그치다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당신의 기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 책 <2인조>를 권하고 싶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공간. 메타버스, 어디까지 달려갈까? 당신은 준비됐나요?

B O O 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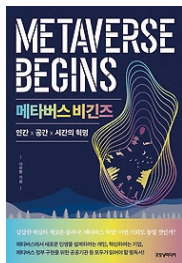
스노 크래시

기계와 함께 살아가는 신세대가 추구하는 물리적 감성!

닐 스티븐슨의 사이버펑크 SF 소설로서 가상세계 '메타버스'와 '아바타'의 개념을 처음으로 대중에게 소개한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컴퓨터 속에서 물리법칙의 한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이 사회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세상으로 메타버스를 묘사하였다. 소설 속에서 캐릭터들은 가상의 신체(아바타)를 빌려 가상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에 서비스를 시작한 세계적인 3차원 가상현실 서비스 '세컨드 라이프'의 창립자 필립 로즈데일은 이 책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언급했으며,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개발자들이 기술서적이 아니라 이 소설을 필독서로 꼽을 정도로 《스노 크래시》는 정확한 지식을 기반으로 컴퓨터 세대가 누릴 세상을 묘사했기에 SF 마니아들의 추앙을 받아 컬트의 반열에 오른 소설이 되었다.

닐 스티븐슨 지음 | 남명성 옮김 | 대교비즈니스 | 2008 | 중앙도서관 2층 문학예술자료관 단행본 | LDM 823.914 S836s한A 1



메타버스 비긴즈

인간 X 공간 X 시간의 혁명

메타버스 열풍 이슈를 완전 정복할 수 있게 돕는 책이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 메타버스, 가상융합, 인공지능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저자가 메타버스의 모든 것을 분야별로 간명하게 풀어내어 산업 및 사회 혁신의 방향을 제시한다. 메타버스를 개별 비즈니스에서 각각의 산업과 공공 및 사회의 영역으로까지 확장하여 기술적·경영학적 분석을 시도, 차별화된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는 풍부한 메타버스 혁신 사례와 이론, 분석을 바탕으로 메타버스의 기원과 성장 과정, 미래의 변화, 메타버스의 이면까지 전방위적으로 조망한다. 특히 메타버스로 인한 가상융합경제의 도래, 산업지형의 변화와 함께 경제가치의 진화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며, 전 산업에 걸쳐 메타버스 전환 전략을 체계적으로 안내한다. 그리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인간과 공간, 시간을 재구성하고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법, 미래 경쟁력 확보의 길을 제시한다.

이승환 지음 | 굿모닝미디어 | 2021 | 중앙도서관 3층 인문사회자료관 단행본 | HDM 338.544 이58 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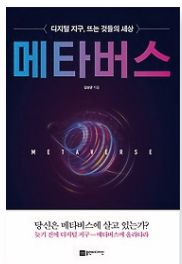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

NFT와 가상현실이 만들어 가는 또 하나의 세상

트윗 한 줄에 30억, JPG 그림 한 장이 700억! 돈을 버는 방법이 달라지고 있다. NFT와 가상화폐가 몰고 온 새로운 경제! 지금 전 세계의 '돈'이 향하는 곳으로 올라타라!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사라지는 세상,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메타버스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경제의 근본적인 흐름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2000년대의 '인터넷 혁명', 2010년대 아이폰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모바일 혁명'에 이어, 2020년에는 MZ세대 뉴노멀을 만나 '메타버스의 시대'가 열렸다. NFT, AR, VR과 함께 가상현실의 세상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다.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투자자라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좋을지, 기업가라면 사업을 어떻게 구상해야 할지... 메타버스의 세상이 궁금하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 보자.

이임복 지음 | 천교루 | 2021 | 중앙도서관 3층 인문사회자료관 단행본 | HDM 303.4833 이69 ㅁ



메타버스

디지털 지구, 뜨는 것들의 세상

메타버스의 기본 개념과 각 영역을 알기 쉽게 실제 IT서비스와 기업의 사례를 들어 소개하고 있다. 인간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흥미와 재미를 제공하는 뜨는 것들의 세상으로써 메타버스를 보여준다.

메타버스는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세계, 어울림을 피하기 위한 수단도 아니다. 더 편하게, 더 많이 이들과 어울리기 위한 세계가 바로 메타버스이며 메타버스 안에서 함께 지지고 볶으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반면에 현실세계의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과 스토리를 통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한다. 메타버스-디지털 지구를 탐험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 될 것이다.

김상균 지음 | 플랜비디자인 | 2020 | 중앙도서관 3층 인문사회자료관 단행본 | HDM 338.544 김51 ㅁ

2021년 코로나 시대의 최고 화두는 ‘메타버스’이다. 메타버스는 ‘초월’이라는 의미의 ‘메타’, 그리고 세계라는 의미의 ‘유니버스’가 합쳐진 말로,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메타버스는 5G 상용화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추세 가속화로 점차 주목받고 있다. 메타버스에 대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책과 영화를 소개한다.

M O V I E



레디 플레이어 원

2045년, 암울한 현실과 달리 가상현실 오아시스(OASIS)에서는 누구든 원하는 캐릭터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고 상상하는 모든 게 가능하다. 웨이드 와츠 역시 유일한 낙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를 보내는 오아시스에 접속하는 것이다. 어느 날 오아시스의 창시자인 괴짜 천재 제임스 할리데이는 자신이 가상현실 속에 숨겨둔 3개의 미션에서 우승하는 사람에게 오아시스의 소유권과 막대한 유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그가 사랑했던 80년대 대중문화 속에 힌트가 있음을 알린다. 제임스 할리데이를 선망했던 소년 ‘웨이드 와츠’가 첫 번째 수수께끼를 푸는데 성공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현실에서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이’라는 거대 기업이 뛰어든다. 모두의 꿈과 희망이 되는 오아시스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승해야 한다! 그리고 우승을 위해서는 가상현실이 아닌 현실세계의 우정과 사랑의 힘이 필요하기만 한데...

타이 쉐리던, 올리비아 콕, 벤 멘델슨, 사이먼 페그, 마크 라이런스 주연 |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 워너브러더스 제작 | 2018 | 140분
중앙도서관 1층 인포메이션커먼스 NVD 791.430973 1697 1



매트릭스

서기 2199년, 인공지능 AI에 의해 인류가 지배되고 있다! 인간의 기억마저 AI에 의해 입력되고 삭제되는 세상.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상 현실 ‘매트릭스’. 그 속에서 진정한 현실을 인식할 수 없게 지배되는 인간들. 그 ‘매트릭스’를 빠져 나오면서 AI에게 가장 위험한 인물이 된 ‘모피어스’는 자신과 함께 인류를 구할 마지막 영웅 ‘그’를 찾아 헤맨다. 마침내 ‘모피어스’는 낮에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밤에는 해커로 활동하는 청년 ‘네오’를 ‘그’로 지목하는데... 꿈에서 깨어난 자들, 이제 그들이 만드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1999년 당시 <매트릭스>가 AI의 지배하에 놓인 가상현실 ‘매트릭스’ 속 세계를 위대한 ‘상상력’으로 담아냈다면, 2021년 현재에는 그 상상력이 점점 ‘현실화’ 되어가고 있는 실제 AI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 <매트릭스>에 대한 영화계 안팎의 관심 또한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키아누 리브스, 로렌스 피스번, 캐리앤 모스, 휴고 윙밍 주연 | 라나 워쇼스키, 릴리 워쇼스키 감독 | 워너브러더스 제작 | 1999/136분
중앙도서관 1층 인포메이션커먼스 NVD 791.430973 103 1



프리가이

현실과 가상 세계를 오가며 짜릿한 엔터테인먼트 액션 블록버스터의 정수를 선보일 영화 <프리 가이>는 자신이 ‘프리스티’ 게임 속 배경 캐릭터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은행원 ‘가이’가 곧 파괴될 운명에 처한 ‘프리스티’를 구하기 위해 한계 없는 허어로 거듭나게 되는 이야기이다. 평범한 은행원 가이(라이언 레이놀즈)는 반복되는 일상에서 평화롭게 지내던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상형 밀리(조디 코어)를 보고 첫눈에 반한다. 주인공 가이는 게임 프리시티에서 정해진 행동만 하는 배경 캐릭터(NPC, Non-Player Character)이다. 가이는 현실에서 사는 게임 플레이어와 달리 프로그램 캐릭터로 게임 프리시티에서만 존재한다. 그런 가이는 밀리를 만나면서 자아를 갖게 되고 혼란에 빠진다. 눈앞에 펼쳐진 바다가 3D 이미지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프리시티의 다른 세상을 보기 시작한다.

라이언 레이놀즈, 조디 코어, 릴 렐 하우어리, 타이카 와이티티 주연 | 손 레비 감독 |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제작 | 2021/115분



용과 주근개 공주

영화 <용과 주근개 공주>는 2021년 현실에서 한발 더 나아가 VR 기술을 접목한 개인화된 메타버스 세상을 배경으로 한다.

“U는 또 하나의 현실, As는 또 한 명의 당신”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닌 ‘스즈’는 사고로 엄마를 잃은 후 더이상 노래할 수 없게 된다. 평범한 나날이 계속되던 중, 우연히 가상세계 U에 접속하게 된 ‘스즈’. 50억 명이 모인 가상세계 U를 통해 신비로운 가수 ‘벨’로 다시 태어나 순식간에 세계적인 스타가 된다.

그런데 ‘벨’의 대규모 콘서트가 열리는 어느 날, ‘용’이라 불리는 의문의 존재가 나타난다. 큰 상처를 안고 있는 듯한 ‘용’에게 마음이 쓰이는 ‘벨’, 그리고 현실의 ‘스즈’. 과연 ‘스즈’의 목소리는 그에게까지 닿을 수 있을까? 두 세계가 하나로 이어질 때, 기적이 일어난다!

사토 타케루, 나카무라 카호, 나리타 료, 소메타니 쇼타, 타마시로 티나 (목소리 출연) | 호소다 마모루 감독 | 스튜디오 차츠 제작 | 2021 | 121분

발견 핫플! 영도 복합문화 공간에 다녀오다

#발견 #이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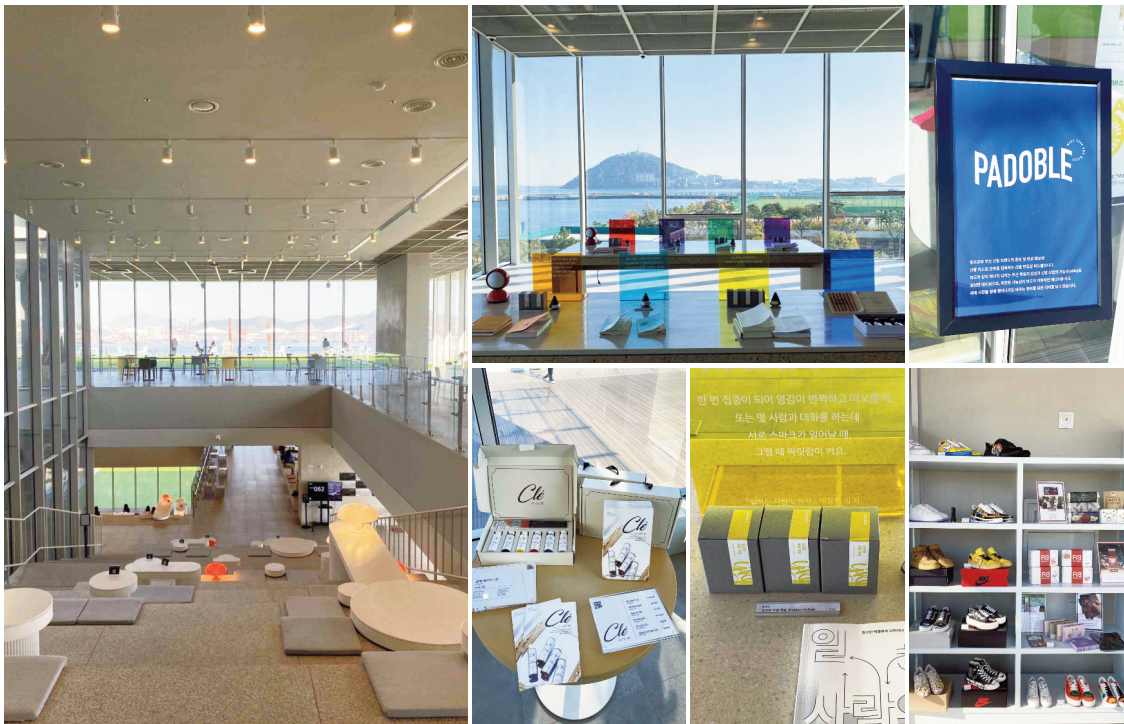
P.ARK SCRAB

조용하던 영도에
커피+문화+로컬의
색을 더한
이색 복합문화공간들이
들어서고 있다.
부산항의
배후공업단지로
선박과 물류 산업이
발달한 영도에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서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중 대표적인 곳인
피아크(P.ARK),
스크랩(SCRAB)에
직접 다녀왔다.
이 공간들에 대한
소개와 함께
영도의 힙한
변화의 모습을 함께
느껴보도록 하자.

피아크 (P. ARK)

무려 약 3,000평에 달하는 초대형 카페로 이름을 알린 피아크. 부산에 기반을 둔 선박수리회사 제일SR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합 문화공간이다.

마치 커다란 배를 땅 위에 세워놓은 듯, 대형 선박의 공간 구조를 모티브로 설계된 피아크는 1층 베이커리, 2-3층 갤러리 & 문화라운지, 4-5층 카페와 팝업스토어로 이루어져있다. 각 층별로 이색적인 공간들을 살펴보자



2-3층 갤러리&문화라운지

현재 2층에서는 커스텀슈즈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는 팝업스토어가 아니라 부산지역의 신발산업 발전과 판매 활성화를 위해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에서 오픈한 편집샵인 파도블 스토어가 운영중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신발을 마음대로 커스텀 할 수 있는 체험행사도 흥미로웠지만, 무엇보다 여기에서 판매하는 신발이 부산지역에서 자체 생산되고 있는 부산브랜드 신발인 점, 그리고 커스텀에 사용되고 있는 골레 리폼 페인트 또한 부산에 본거지를 둔 조광페인트를 사용했다는 점이 의미 있게 느껴졌다.

방문자들에게 체험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부산에서 생산된 지역상품을 홍보하고 판로 또한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현재는 파도블 팝업 스토어 외에 특별 전시는 잠시 쉬어가고 있었지만, 지난 10월에는 부산문화재단과 협업하여 해양 쓰레기라는 환경 문제를 일상에 끌어들이는 주제로 전시를 진행했다고 한다. 앞으로도 지역 기업, 시민, 아티스트 등과 협업한 다양한 전시와 체험거리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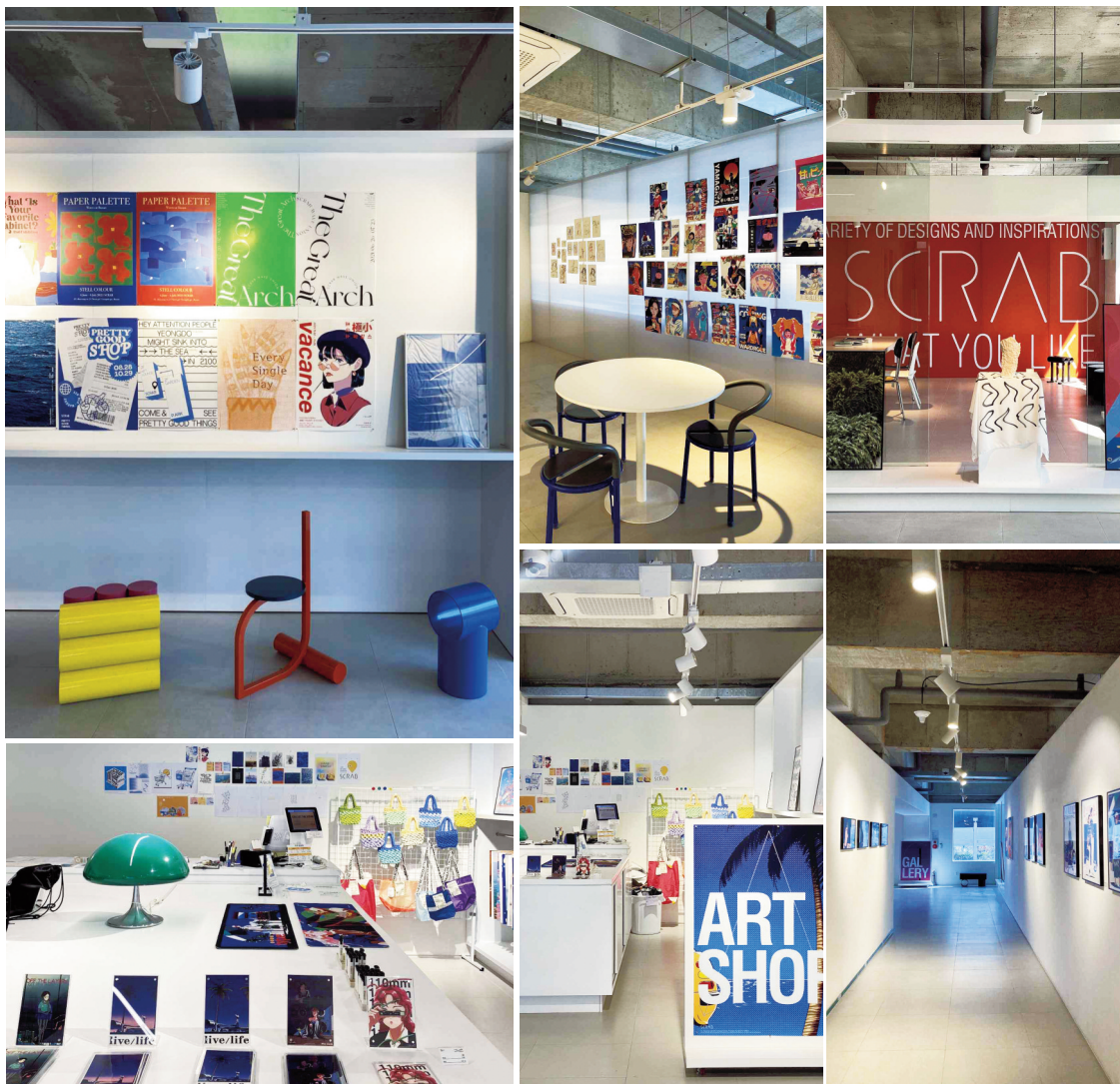
4-5층 카페

4층 카페에 들어서면 탁 트인 유리창을 통해 선박들이 늘어진 영도의 풍경이 한눈에 펼쳐진다. '부산다운', '영도다운' 풍경을 보여 주고자 했다는 의도가 적절히 드러나는 공간이었다. 커피바 옆에서는 영도 바다와 주택을 모티브로 국내 문구 브랜드 모나미와 속초 대표 서점 문우당서림의 콜라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스크랩 (SCRAB)

피아크의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갤러리 카페 스크랩. 스크랩 역시 제일SR 사옥의 일부에서 운영되고 있다.

스크랩은 연희동의 아트 스페이스인 '캐비닛클럽'을 통해 연결된 그래픽 아티스트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어 서울까지 가지 않고도 부산 영도에서 약 200여팀의 그래픽 아트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산 로컬 패션 브랜드의 팝업스토어를 오픈하고,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들의 전시를 유치하는 등 부산의 로컬 문화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아지트 역할을 하고 있다.



커피를 마시며 전시를 무료로 감상할 수 있고 전시작품은 주기적으로 바뀌고 스크랩 내에 운영되고 있는 아트샵에서 전시 관련 굿즈를 구입할 수도 있다.

공업단지로만 인식되던 영도가 부산을 대표하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주 활동지로 탈바꿈하고 있는 과정을 엿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전시와 체험 그리고 물건을 판매하는 일반적인 복합문화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부산, 그리고 영도라는 독특한 지역색을 녹여낼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좋았다. 앞으로도 부산 시민들에게는 문화적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그리고 부산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에게는 부산의 기업, 제품, 작가들을 소개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잘 운영될 수 있기를!

SPECIAL FOCUS 시선집중

2021년 도서관 오디오북 체험전시 『어디까지 들어봤니?』

2021년 도서관 기획전시회 『어디까지 들어봤니?』가 성황리에 운영됐다. 오디오북 기획전시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과 이용자의 다양한 독서 매체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기획됐으며, 도서관에서 구독·소장 중인 오디오북을 활용해 체험형 전시로 진행됐다.

7월 초 새벽별도서관을 시작으로 미리내도서관, 중앙도서관, 의생명과학도서관을 거쳐 마지막 나노생명과학도서관까지 순회전시회를 함으로써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분관도서관을 통해서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매년 다양한 주제로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기획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내년 기획전시회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의생명과학도서관(양산)

2021년 PNU SF DAY 강연회 <과학, SF를 만나다> 및 특별전시회<바이러스 쇼크, 삶의 패러다임을 바꾼 팬데믹> 개최

2021년 PNU SF DAY 강연회 <과학, SF를 만나다> 및 특별전시회 <바이러스 쇼크, 삶의 패러다임을 바꾼 팬데믹>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를 이룰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부산대학교 도서관과 지역 기업 DRB가 협력한 과학 분야 독서문화사업으로 부산대학교 구성원과 지역민이 참여한다. 서울 SF 아카이브 박상준 대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1부는 <바이러스, 인간을 공격하다>를 주제로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최강석 교수가 강연을 진행했고 2부는 <바이러스, 인간을 노린 것이 아니다>라는 주제로 이은희 작가가 연단에 올랐다.

특별전시회는 주제 관련 전시회로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삶의 패러다임이 과거와 완전히 달라진 데 착안해 이번 전시회에서는 과거의 전염병이 인류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한다. 또한 특별기획전은 중앙도서관에서 개최 후 미리내도서관, 의생명과학도서관을 순회 전시할 예정이다.



저자와의 만남 - 정유정/최은영 작가 초청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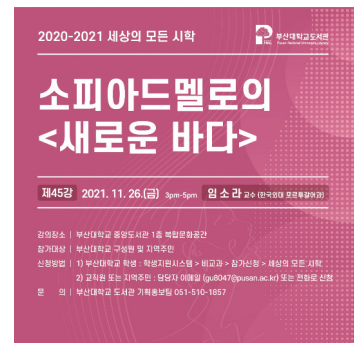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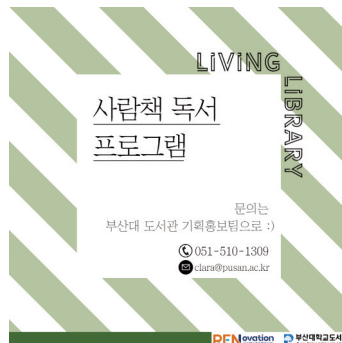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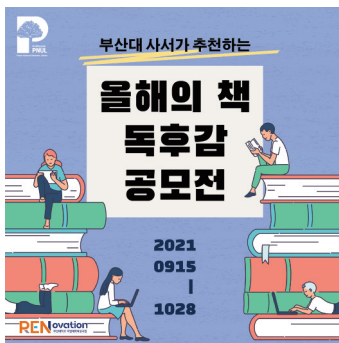
지난 9월 30일 부산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 복합문화공간에서 『완전한 행복』을 주제로 정유정 작가를, 11월 17일에는 『《밝은 밤》 백 년의 시간을 감싸 안으며 이어지는 사랑과 숨의 기록』의 주제로 최은영 작가를 초청해 '저자와의 만남'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에서는 자기애와 자존감, 행복, 사랑과 숨의 기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작가와 이야기를 진행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자를 선착순으로 제한하고 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강연을 중계했으며 현장·온라인 참가자 추첨을 통해 정유정, 최은영 작가의 친필 사인이 담긴 도서를 나눠주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국립대학육성사업 - 독서 문화 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추진한 '효원 북클럽'이 1기에 이어 2기 활동에 들어갔다. 2학기 효원 북클럽에는 64팀 270명이 신청해 '미토콘드리아' 등 50개 팀 211명이 선발됐으며, 우수 북클럽 11팀을 뽑아 12월 22일 최종 발표대회를 거쳐 상금 및 상장을 시상한다.

한편 도서관에서는 북 트레일러 공모전, 세상의 모든 시학, 사람책 독서 프로그램, 효원인과 함께 읽고 싶은 책, 사서가 추천하는 올해의 책 등을 〈국립대학육성사업〉으로 진행해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 향상을 지원했다. 앞으로도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전개해 학내 독서문화 활성화에 앞장설 예정이다.



부산대학교의 대표도서관이 필요합니다.

지성과 학문이 무르익어 가는 곳, 대학
대학의 상징, 도서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효원인의 기상을 펼칠

부산대학교 신축 도서관 건립을 위한 발전기금 모금에 동참해 주세요

